

광주 유흥업소發 ‘숨은 감염자’ 우려

방역당국, 확진자 중 상당수 활동성 강한 20대 종사자

명부작성 소홀 가능성...2차례 재난문자에도 검사 미미

광주의 한 유명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숨은 감염자’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27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구 상무지구 모 유흥주점 관련 신규 확진자가 3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다.

여중업원(3252번)이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이던 지난 25일 확진된 뒤 26일 종사자 4명, 이용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이날 종사자 2명, 이용자 1명이 더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7명이 연쇄 감염된 상무지구 내 또 다른 유흥주점과의 관련성 여부도 조사 중이다.

최근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업소는 5층 건물로, 1층과 4층, 5층에 각기 다른 상호로 유흥업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상당수가 활동성이 강한 20대 종사자인데다 이용자들이 QR코드 확인이나 명부작성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소 특성상 신문을 밝히거나 실명 검사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고 보고 두 차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자발적 검사를 독려했으나 관련 검사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지표환자를 포함해 업주와 종사자, 이용기록을 남긴 접촉자 등 42명이 검사를 마쳤고, 이중 양성인 11명, 음성인 25명이고 6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 당국은 유흥업소의 경우 다수의 종사자가 확진되고 나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전례에 비해 해당 업소 이용자나 종사자

와의 직·간접 접촉자들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나 검사 실적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방역과 표면소독에 이어 코로나19 지원단, 자치구보건소와 함께 현장 위험도평가를 마쳤고, 폐쇄회로(CO)-TV, GPS검사 등을 통해 밀집 또는 간접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업소는 8월6일까지 자체 폐쇄됐다.

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자발적인 검사자수가 적어 업소실명이 담긴 재난안전문자를 2차례나 발송했다”며 “방문자들의 자발적 검사가 추가 감염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비수도권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도 이날부터 8월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됐다.

기동취재본부

수습·경력기자 모집

“지역언론의 선봉장인 호남신문에서 재능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모집부문·인원 : 수습·경력기자 0명
- ▶ 지원기간 : 채용시까지
- ▶ 지원자격 : 학력·나이제한 없음
-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
-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부착)·자기소개서 각 1부
-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ihonam@naver.com)
- ▶ 접수처 :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문의전화 : 062-229-6000)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가 오는 9월15일 첫 신차 양산을 앞두고 성공적인 생산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GGM 제공)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순천·보성·신안 등 전남 87%...김영록 지사 “대한민국 생태수도 토대”



보성 갯벌

전남도는 중국 북경성 푸저우에서 지난 26일 열린 제44차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등재)’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자연유산이 됐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 갯벌인 순천-보성, 신안, 전북 고창, 충남 서천의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모래 갯벌 육지부에 사구가 발달했고, 방풍림이 분포했으며, 배후에 염전과 논이 있다. 자연 송림으로

경관도 뛰어나다.

연간 300여 종, 약 100만 마리가 넘는 철새 이동로로 다양한 생물종과 고동, 게, 조개류 등 대형 저서동물 150여 종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다.

와텐해(독일, 네델란드), 미국, 중국 갯벌과 다른 생태환경도 한 특징으로 등재 정당성을 갖췄다. 전체 신청 유산구역은 12만 9천346ha이고,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한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준비과정부터 문화재청,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 등재추진단, 지역주민 모두 한뜻으로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성과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성명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간절한 의지와 열의를 담아 응원한 도민들이 이룬 쾌거”라며 “갯벌은 300여 종 100만 마리가 넘는 철새를 비롯해 2천15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의 보고로, 전남이 대한민국 생태 수도로 자리매김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 ‘첫 신차’ 9월15일 출시

현대자동차 위탁 1000cc급 SUV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자 ‘광주형 일자리 1호’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50일 뒤부터 본격적인 신차 양산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받아 GGM이 선보일 첫 신차는 1000cc급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SUV)로 알려졌다.

GGM은 한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신차 생산준비에 박차를 가한 결과 오는 9월15일 역사적인 첫 양산차가 출고된다고 27일 밝혔다.

최고 품질의 자동차 생산을 예고한 GGM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빛그린산단 사업장에서 ‘성공적 양산 D-50 합동 점검·결의대회’를 하고 한 치의 차질 없는 양산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준비과정 점검과 그 결과를 공유하고 신차 생산까지 남은 50일간 중점 준비를 통해 반드시 성공적인 자동차 양산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

해 열렸다. 결의대회에서 노사는 ‘상생과 최고 품질 생산으로 성공적인 양산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결의했다.

현재 시험생산을 진행 중인 GGM은 실제 출시 차량과 똑같은 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생산된 차는 연구소로 보내 작은 결점에서부터 품질 전반에 걸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을 진행하고 보완하고 있다.

GGM은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8월 선행 양산을 거쳐 오는 9월15일 완벽한 품질의 자동차를 선보이게 된다. 올 연말까지 약 4개월간 목표 생산량을 1만2000대로 잡고 있으며, 내년에는 7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회사 설립 2년 만에 자동차 양산을 앞두고 있어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오는 9월 양산에 돌입할 때까지 전력을 다해 광주시민이 환호하고 소비자가 깜짝 놀랄만한 무결점 자동차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워킹레일





요양원 061) 395-2580
 주간보호 061) 394-0123

신세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장성을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